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17. 2. 15.(수)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재)서울대발전기금 기획팀	문의	변영현(02-871-1621)

대를 이은 나눔,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20억원 쾌척

-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45)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건축 및 시설확충기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0년 신풍제약 설립자로 장원준 사장의 선친인 故송암 장용택 회장(서울대 약대 '55입학-'61졸업, 2016년 별세)이 약학대학에 10억원을 기부한 바 있어 총 20억원을 쾌척하게 됐다.
- 2017년 2월 15일(수) 낮 12시 서울대에서 열리는 협약식에 성낙인 총장과 장원준 사장을 비롯해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최영선 이사, 약학대학 이은방 명예교수·이봉진 학장·성상현 교무부학장 등 주요 학내 인사와 신풍제약 임원들이 참석한다.
- 장원준 사장은 “선친은 모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왔으며, 서울대가 신약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하셨다”며 “그러한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고 서울대 약대가 세계 인류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성낙인 총장은 “신풍제약을 우수한 제약 회사로 육성하신 故 장용택 회장님과 대를 이은 나눔에 앞장서고 계신 장원준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신풍제약은 故장용택 회장이 1962년 설립했으며, 관절염 등 소염진통제와 항생제 및 항암제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지난 2014년 신풍제약은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고 MMV(빌게이츠재단)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아프리카와 수단, 중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는 이번에 조성된 20억원의 기금을 약학대학 관련 시설물 건축과 첨단 시설 지원 및 신약개발 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